

[경제]

“유류세 낮춰라” 시민·소비자단체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

“서민 유류비 경감 마련”...결가지 정책으로 본질 외면

네티즌 등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에 한정했던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드디어 정치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유류세 인하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주요 정당과 유력 대통령선거 후보, 지방의회 등까지 유류세 인하요구에 동참하면서 과도한 세금을 낮추라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주 마련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서민 유류비 경감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도 휘발유 특별소비세 등 유류세 인하는 빼겠다는 입장이어서 ‘유류세 인하 대전(大戰)’이 다시 불붙을 조짐이다.

◇“유류세 인하하라” 전방위 압박 고조=열린우리당 조경태 원내 부대표는 지난 5일 “조만간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유가를 낮추기 위해 세금을 줄이는 방안

세법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세금 중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10%씩 일괄 인하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정부측의 집요한 반대에도 대통령 선거 등 ‘선거의 계절’이 돌아오면서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민 6대 생활

비 경감프로젝트’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각각 10% 내리고 석유제품 수입관세를 내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역시 지난달 21일 유류세 인하에 대해 “양면이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올리더라도 10%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5일 성명서를 통해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비중이 2006년 기준 약 57% 정도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유사한 일본에 비해 15%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촉구했다. ◇정부, 버티기 전략=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강도높은 유류인하 요구 목소리에도 정부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결가지’ 정책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내주 발표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서민가구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기에는 각종 보조금이나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세금인하는 배제된 상태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반대 근본 원인

올 수출액 3,670억弗 전망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당초 전망치보다 70억 달러 많은 3천 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수입이 수출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무역흑자는 연초 전망보다 20억 달러 감소한 150억 달러선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자원부는 8일 상반기 수출입 실적을 토대로 경제연구소 및 산업별 단체의 전망을 분석, 이 같은 수출입 전망치를 제시했다.

산자부가 내놓은 연간 수출 전망치는 지난해 수출실적에 비하면 12.8% 증가한 것이다. 이는 상반기 14.7%를 기록했던 수출 증가율이 하반기에는 11.1%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것이다. 산자부는 작년 하반기의 호조에 따라 올해 같은 분기에는 수치가 내려온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200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30%나 절상되고 원화 고공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이 예상되는 이유로 올해 4.9%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세계 경제 성장세를 꼽았다.

산자부는 그러나 경제연구소의 분석자료를 인용, “외환위기 전후 수출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율충격이 전체 요인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22.8%에서 12.8%로 낮아진 반면, 세계경기 충격의 비중은 14.1%에서 43.1%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3.2%), 조선(19.3%), 철강(19.4%), LCD패널(24.0%) 등이 하반기에 높은 수출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했다. 반면, 가격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5.1%)는 증가율이 둔화되고 가전(-3.3%)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재정 늘어도 서민 체감 ‘제자리’

복지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보험지출 등 법정지출 비중이 높아 서민들의 체감 복지 수준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현재 1인당 국민소득과 노인인구 비중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낮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인화 국회예산정책처 사회예산분석팀장은 8일 ‘복지재정지출의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2004년 32조4천억원에서 2010년 79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16.1% 늘어나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6.5%)의 2.5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연감 자료를 인용해 단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지출에서 복지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0%(잠정치)로 OECD 30개국 중 터키 다음으로 낮고 전체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도 27~65%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지출 수준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지재정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금의 성숙도(가입자 수 대비 연금 지급률)는 우리나라가 2007년 현재 4대 공적연금 평균이 12.8%인데 OECD 회원국의 6분의 1~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낮은 노인인구 비중,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인당 국민소득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BTL 담합 7개건설사 과징금 365억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이 입찰 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정부 공사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 낙찰 받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건설업체가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64억5천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대우건설·포스코건설·SK건설·쌍용건설·금호산업·경남기업·백산건설 등 7개사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환경부가 BTL 방식으로 17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건설과 백산건설은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백산건설은 대리 역할을 했다.

대우건설은 또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도 경남기업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입찰에서 형식적인 경쟁사로 참여하도록 사전에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에서 금호산업이 형식적으로 참여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도록 지원한다는 데 사전에 합의했다.

또 쌍용건설과 SK건설, 금호산업 등 3개사는 작년 1월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각각 제출할 금액을 공개 합의를 한 뒤 설계심사 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했다.



한국코카콜라 홍보요원들이 8일 광주시 충장로 일대에서 ‘코카콜라 잡고 스텝터 잡고’라는 행사를 벌이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코카콜라를 나눠주고 있다. 이 행사에는 여름 음료시장 공략을 위해 마련됐으며, 7·8일 이틀간 2만여명의 콜라가 제공됐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코카콜라 도심 이벤트

수출중소 82% 환위험 노출

절반가량은 환율변동 관리 전혀 안해

수출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의 82.3%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신용보증기금(코비)이 2005년말 기준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3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48.1%가 환위험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34.2%는 부분적으로만 환위험을 관리한다고 밝혀 전체 기업의 82.3%가 환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환위험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이 21.5%로 가장 많았고, ‘적절한 관리방법을 몰라서’ 18.4%, ‘환위험 관리에 따른 비용 때문’ 16.6%의 순이었다.

환위험관리 방법으로는 시중은행의 선물환거래가 35.1%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가입 29.2%, 수출입계약 대금결제일 조정 22.1%, 선물회사의 통화선물거래 3.2%의 순으로 응답했다.

평균 손익분기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959.8원, 원·엔 환율은 831.4원이라고 응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893.3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원·엔 환율이 743.1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수출중소기업이 예상하는 올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927원 수준이었고, 920~950원대로 예상한 업체가 67.9%로 가장 많았다.

실적 호조 조선주 중심 상승세 탈 듯 금리인상·중 증시 반등 여부가 변수

■주간 증시 전망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주(9~13일) 주식시장에 대해 주요 기업들의 2·4분기 실적 발표 속에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중·후반 실적을 발표하는 22개사에 대한 실적 전망치 분석 결과 조선주를 중심으로 실적 호조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인 2·4분기 어닝시즌이 시작되는데 현재까지 진행태은 글로벌 및 국내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감안할 때 이번 어닝시즌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12일 열리는 금융위 회의

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지 여부, 중국 증시의 반등 여부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증권사 전문가는 “단기금동에 대한 부담과 중국증시의 조정 여파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후반 실적 발표를 제공할 개연성은 있지만 당초 우려했던 수준 이하에서 긴축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어닝시즌을 앞두고 기업 이익 모멘텀 개선에 대한 기대가 향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기조를 유지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달 실적을 발표하는 22개사에 대한 실적 전망치에 따르면 조선주의 실적호전 이 가장 탄탄한 가운데 이익의 개선 속도 측면에서는 IT와 유통주, 경기 소비재(자동차·부품, 미디어·엔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시중자금 너무 많이 풀렸다

5월 광의유동성 1,913조원 ... 전달보다 25조나 증가 금융당국, 콜금리 인상 통한 유동성 흡수 나설 듯

한때 주춤하던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지난 5월중에도 다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통화당국이 콜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흡수에 나설 명분은 더욱 강화돼 12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광의유동성(L)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광의유동성 잔액은 1천913조5천억원으로 전달보다 25조4천억원(1.3%) 증가했다.

또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1천 582조3천억원으로 월중 19조원(1.2%) 증가했다. 5월의 광의유동성 증가규모는 4월(12조8천억원)의 배 수준이며 작년 12월의 26조1천억원 증가 이후 5개

달만에 최대에 해당한다. 작년 동월 대비 광의유동성 증가율은 3월에 12.3%를 기록한 후 4월에 11.8%로 다소 둔화됐으나 5월에는 12.2%로 증가율이 높아졌다.

한은은 “시·도 금고 자금을 중심으로 한 단기 정기예금이 늘고 증시 호조 등을 반영해 주식형 수익증권 수신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국제·지방채 발행도 꾸준히 증가해 전반적으로 유동성 증가세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유동성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은 자금수요 주체들이 현재의 금리수준에 아무런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정책금리 인상을 통한

▲광의유동성=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상품에 정부와 기업이 공급하는 유동성 상품까지 포함하는 가장 넓은 의미의 유동성 지표다. 즉 현금·요구불예금·정기예적금·실적배당형상품·증권금융예수금·보험계약준비금 등 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품에다 정부 및 기업이 발행한 국제·지방채·기업어음·회사채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유동성 흡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광의유동성 증가현황을 상품별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의 6개월 미만 금융상품은 시·도 금고 자금을 중심으로 한 단기 정기예금과 은행들의 양도성에금증서(CD) 발행이 늘면서 5월중 8조1천억원이 증가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名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제품을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명품’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8일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재 등 3개 분야별로 차별적 감성과 품질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높여주는 합리적인 명품을 가려내 ‘제1차 The Proud 대한민국 명품’으로 선정했다. 가전제품으로 삼성전자의 ‘삼성PAVV’, LG전자의 ‘LG디오스’, 쿠쿠홀리스의 ‘쿠쿠’ 등이 생활용품

로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유니레버코리아의 ‘도브’, 불가리코리아의 ‘불가리’ 등이, 금융분야에서 동양종합금융증권의 ‘동양종합금융증권’, 우리는 행의 ‘우리는행(TWO CHAIRS)’, 비씨카드의 ‘비씨카드’ 등이 명품으로 선정됐다. 분야별로 선정된 명품은 내구재 30개, 소비재 30개, 서비스 분야 22개 등 모두 82개 제품이다. 이번 조사는 KMAC가 시장 점유율, 가격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 등을

삼성 PAVV LG 디오스 설화수

바탕으로 74개 프리미엄 산업군 341개 상품을 선정, 해당 상품을 1년 이내 경험했거나 상품특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 및 6개 광역시 주민 5천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Table with 3 columns: Rank, 2006 Domestic Sales, and Rank. Lists top 5 domestic companies.

Table with 3 columns: Rank, Domestic Sales (100M), and Rank. Lists top 7 domestic companies.

